



이 슈 리 포 트

2009년 4/4분기 수출기업체감지수 및 수출기업 애로사항

이 재 우/산업투자조사실 선임연구원
고 형 곤/산업투자조사실 조사역

- | | |
|---|---|
| <p>I. 수출기업체감지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09년 4/4분기 수출기업 평가지수 2. 2010년 1/4분기 수출기업 전망지수 | <p>II. 2009년 4/4분기 수출 개선·악화 원인 및 애로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업황개선 및 악화 원인 2. 수출기업 애로사항 |
|---|---|

요 약

1. 2009년 4/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4/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수출물량과 증가에도 불구하고 채산성 악화로 전기(112)보다 하락한 103을 기록함
- 4/4분기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전기(102)보다 하락한 94를 기록, 기업들의 수출채산성이 전기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4/4분기 생산원가평가지수(109 → 105)가 소폭 하락한 반면, 수출단가(원화기준)평가지수가 크게 하락(98 → 92)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채산성이 악화됨.
- 4/4분기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108을 기록, 기준치(100)을 상회하여 확장세는 지속되었으나, 석유화학(113 → 96)과 전기전자(120 → 108)의 부진으로 전기(112)보다 소폭 하락



- 수출계약 평가지수도 전기(112)보다 하락한 109를 기록하여 수출업체들의 계약 성사 건 수도 전기 대비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4/4분기 자금사정 평가지수도 기계류(105 → 98), 선박(85 → 79) 등에서 감소하여 전기(107)보다 소폭 하락한 103을 기록

2. 2010년 1/4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2010년 1/4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110으로 기준치(100)를 상회하였으나, 2009년 4/4분기(117)보다 소폭 하락, 수출기업들은 내년 1/4분기 수출업황이 올해 4/4분기보다 개선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1/4분기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101로 4/4분기(108)보다 다소 하락하여 수출기업들은 수출채산성이 원화환율 하락 전망 등으로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1/4분기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112를 기록, 확장세는 지속되나, 전기(118)보다 하락하여, 전기보다 수출물량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1/4분기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103을 기록, 전기(111)보다 하락 하여, 수출기업들은 자금사정이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수출기업 업황개선·악화 원인과 애로사항

- 2009년 4/4분기 중 수출업황이 개선된 기업은 31.3%이며, 악화된 기업은 22.4%로 나타남
- 수출업황 개선 기업의 업황개선 원인으로서는 수출대상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75.9%)와 원화환율 변동(23.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 4/4분기 중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원화환율 불안정(71.2%), 원자재 가격 상승(50.1%) 및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46.6%)가 꼽히고 있음

I. 수출기업체감지수

1. 2009년 4/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4/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수출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채산성 악화로 전기(112)보다 하락한 103을 기록
- 4/4분기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전기(102)보다 하락한 94를 기록, 기업들의 수출 채산성이 전기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4/4분기 생산원가평가지수(109 → 105)가 소폭 하락한 반면, 수출단가(원화기준) 평가지수가 크게 하락(98 → 92)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채산성이 악화됨.
 - 원/엔환율과 원/달러환율 모두 전기 대비 다소 하락하면서, 수출단가(원화 기준) 평가지수와 생산원가 평가지수 모두 소폭 하락
 - ※ 원/달러환율* 추이(기간평균):
1,363(2008.4/4) → 1,421(2009.1/4) → 1,289(2/4) → 1,241(3/4) → 1,168(4/4, 12.22일까지)
 - ※ 원/엔(100)환율* 추이(기간평균):
1,421(2008.4/4) → 1,527(2009.1/4) → 1,323(2/4) → 1,325(3/4) → 1,304(4/4, 12.22일까지)
(*한국은행)



- 4/4분기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108을 기록, 기준치(100)를 상회하여 확장세는 지속되었으나, 석유화학(113 → 96)과 전기전자(120 → 108)의 부진으로 전기(112)보다 소폭 하락
 - 수출계약 평가지수도 전기(112)보다 하락한 109를 기록하여 수출업체들의 계약 성사 건 수가 전기 대비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4/4분기 자금사정 평가지수도 기계류(105 → 98), 선박(85 → 79) 등 모든 산업에서 감소하여 전기(107)보다 소폭 하락한 103을 기록

<표 1>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업황 평가지수	99	102	101	101	99	109	100	77	73	97	112	103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4	93	100	92	100	105	102	96	92	93	102	94
수출단가 평가지수	98	97	101	99	120	125	118	119	107	87	98	92
생산원가 평가지수	109	109	112	114	138	146	135	125	116	104	109	105
수출물량 평가지수	107	112	111	114	104	117	102	73	68	106	112	108
수출계약 평가지수	106	113	112	113	104	118	104	71	67	105	112	109
자금사정 평가지수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107	103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황평가지수가 각각 109, 102를 기록, 전기(대기업 123, 중소기업 109)보다 모두 하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업황개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대기업은 95, 중소기업은 93을 기록, 전기보다 대기업(109)과 중소기업(100) 모두 하락하여 채산성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전기(123, 109)보다 하락한 115, 106을 기록하여 전기 대비 수출물량 확장세가 낮아짐.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전기(124, 102)보다 하락한 113, 100을 기록하여 전기 대비 자금사정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플랜트(125 → 128), 자동차(119 → 122)를 제외하고 석유화학(116 → 92), 전기전자(120 → 104), 철강 및 비철금속(111 → 100), 기계류(107 → 98) 등 대부분의 산업이 개선폭이 둔화됨
- 산업별 수출채산성은 섬유류(95 → 96), 플랜트(110 → 122)를 제외한 석유화학(102 → 78), 기계류(101 → 88), 전기전자(108 → 97), 자동차(104 → 94)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플랜트(122)와 철강 및 비철금속(100)을 제외한 석유화학(78), 선박(86), 기계류(88) 등 모든 산업에서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채산성이 악화된 기업수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수출물량 평가지수의 경우 선박(94 → 100), 섬유류(102 → 113), 플랜트(110 → 144) 등은 상승하였으나, 석유화학(113 → 96), 전기전자(120 → 108)의 산업에서는 전기보다 하락하여, 수출물량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기계류(105 → 98), 자동차(113 → 102), 선박(85 → 79) 등 모든 산업에서 전기보다 하락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수출 지역별 업황평가지수는 일본(104 → 106), 중남미(94 → 108)를 제외한 동남아(113 → 99), 중국(122 → 109)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업황이 전기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지역별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역시 중남미(78 → 92)와 일본(97 → 97)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기보다 악화됨.



- 수출지역별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일본(107 → 112), 유로(107 → 109), 예서만 소폭 개선되었고, 중국(121 → 105), 동남아(109 → 104)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폭 악화됨.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중남미(94 → 119), 일본(97 → 106)에서는 크게 상승한 반면, 동남아(111 → 96), 중국(115 → 110), 미국(108 → 104) 등의 지역에서는 하락하여 이들 지역의 악화된 자금사정을 반영하였음.

<표 2>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 지역별 2009년 4/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물량 평가지수		자금사정 평가지수	
		3/4분기	4/4분기	3/4분기	4/4분기	3/4분기	4/4분기	3/4분기	4/4분기
규모별	대 기업	123	109	109	95	123	115	124	113
	중 소 기업	109	102	100	93	109	106	102	100
업종별	석유화학	116	92	102	78	113	96	101	101
	철강 및 비철금속	111	100	103	100	111	110	113	109
	전기·전자	120	104	108	97	120	108	107	107
	기계류	107	98	101	88	108	97	105	98
	자동차(부품 포함)	119	122	104	94	123	120	113	102
	조선	79	79	94	86	94	100	85	79
	섬유	106	105	95	96	102	113	109	106
	플랜트	125	128	110	122	110	144	135	128
	미 국	114	106	102	97	111	110	108	104
지역별	중 국	122	109	107	95	121	105	115	110
	일 본	104	106	97	97	107	112	97	106
	유 로	104	99	103	91	107	109	101	101
	동 남 아	113	99	101	87	109	104	111	96
	중 남 미	94	108	78	92	111	108	94	119



2. 2010년 1/4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2010년 1/4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110으로 기준치(100)를 상회하였으나, 2009년 4/4분기(117)보다 소폭 하락, 수출기업들은 내년 1/4분기 수출업황이 올해 4/4분기보다 개선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1/4분기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101로 4/4분기(108)보다 다소 하락하여 수출기업들은 수출채산성이 원화환율 하락 전망 등으로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1/4분기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112를 기록, 확장세는 지속되나, 전기(118)보다 하락하여, 전기보다 수출물량 증가폭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기업들은 전망하고 있음.
- 1/4분기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103을 기록, 전기(111)보다 하락하여, 수출기업들은 자금사정이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위기수준에서 정상화 한다는 발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 3>

수출업황 전망지수 추이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업황 전망지수	102	112	106	108	73	107	112	117	110
수출채산성 전망지수	98	106	100	104	79	106	105	108	101
수출단가 전망지수	102	115	114	104	93	103	97	99	97
생산원가 전망지수	110	127	127	111	105	110	103	105	106
수출물량 전망지수	110	122	116	113	72	110	117	118	112
수출계약 전망지수	109	121	117	112	72	111	117	118	111
자금사정 전망지수	n/a	n/a	n/a	n/a	n/a	n/a	n/a	111	103



- 기업규모별로 볼 때 1/4분기 수출업황은 대기업(124 → 108)과 중소기업(115 → 110) 모두 전기 대비 다소 개선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대기업(111 → 104)과 중소기업(107 → 100) 모두 전기보다 하락하여, 다음 분기에 수출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대기업(125 → 116)과 중소기업(115 → 111) 모두 전기보다 낮아져, 수출증가율이 전기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1/4분기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대기업, 중소기업(108, 102) 모두 전기(117, 110)보다 하락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 산업별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플랜트(125 → 133), 석유화학(107 → 107)을 제외한, 선박(112 → 96), 섬유류(114 → 100), 자동차(124 → 111)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기보다 감소하여, 다음 분기 업황 개선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플랜트(125 → 128)와 석유화학(107 → 107)을 제외하고 전기전자(111 → 99), 기계류(107 → 99), 섬유류(103 → 96)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채산성이 전기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 산업별 수출물량 전망지수도 플랜트(140 → 144), 석유화학(110 → 116)을 제외하고, 자동차(125 → 107), 섬유류(114 → 103) 등 대부분의 산업이 전기 수치를 하회하여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자금사정 전망지수도 플랜트(125 → 128)을 제외한 선박(112 → 100), 철강 및 비철금속(112 → 98), 자동차(115 → 105) 등 전 산업에서 하락하여 수출기업들은 자금사정 개선도의 악화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 지역별로는 유로(108 → 110), 중남미(106 → 108)를 제외하고 중국(117 → 108), 일본(113 → 101), 동남아(117 → 109)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업황 개선도가 전기 대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지역별 수출채산성 전망지수 역시 중남미(94 → 96)와 미국(106 → 108)을 제외한 전 지역, 일본(108 → 95), 중국(112 → 101), 유로(109 → 101)등의 지역에서 전기 대비 하락하여 이들 지역에 수출하는 기업의 채산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수출지역별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중국(122 → 111), 동남아(117 → 110), 중남미(122 → 104) 등 전 지역에서 하락하여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지역별 자금사정 전망지수 역시 중남미(100 → 100)을 제외한 동남아(116 → 96), 유로(110 → 99)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하여 자금사정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됨.

<표 4>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 지역별 2010년 1/4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수출업황 전망지수		수출채산성 전망지수		수출물량 전망지수		자금사정 전망지수	
		2009년 4/4분기	2010년 1/4분기	2009년 4/4분기	2010년 1/4분기	2009년 4/4분기	2010년 1/4분기	2009년 4/4분기	2010년 1/4분기
규모별	대 기 업	124	108	111	104	125	116	117	108
	중 소 기 업	115	110	107	100	115	111	110	102
업종별	석 유 화 학	107	107	99	99	110	116	107	101
	철강및비철금속	120	115	109	106	120	115	112	98
	전 기 · 전 자	115	107	111	99	115	112	111	103
	기 계 류	116	110	107	99	115	114	110	102
	자동차(부품 포함)	124	111	108	102	125	107	115	105
	조 선	112	96	112	107	121	114	112	100
	섬 유	114	100	103	96	114	103	108	100
	플 랜 트	125	133	125	128	140	144	125	128
	지 역 별	미 국	120	116	106	108	116	115	113
	중 국	117	108	112	101	122	111	113	104
	일 본	113	101	108	95	112	110	105	99
	유 로	108	110	109	101	115	112	110	99
	동 남 아	117	109	103	98	117	110	116	96
	중 남 미	106	108	94	96	122	104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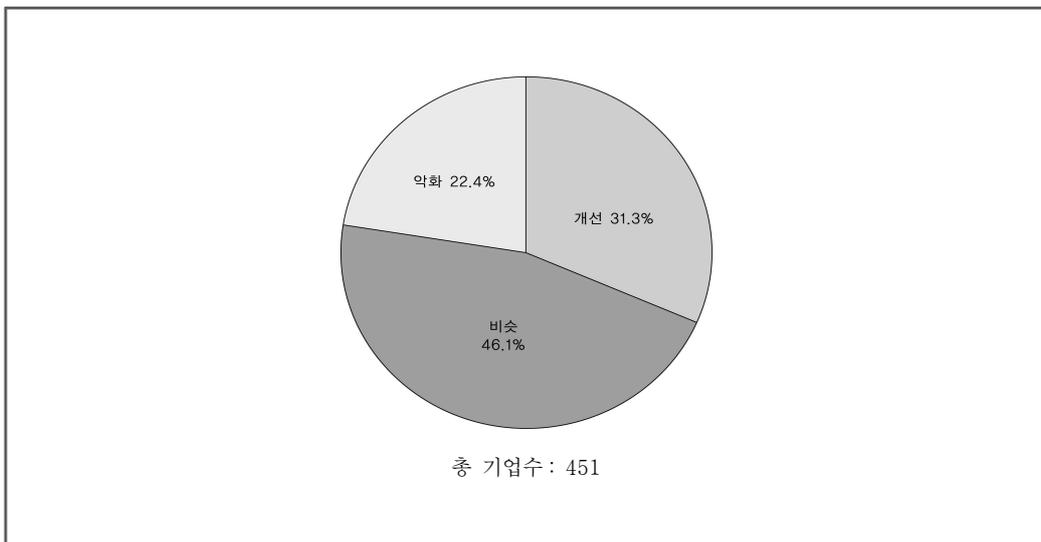


II. 2009년 4/4분기 수출기업 업황개선·악화 원인 및 애로사항

1. 수출업황 개선 및 악화 원인

- 2009년 4/4분기 중 수출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기업 중 31.3%이며,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22.4%로 나타나, 전기(개선: 40.9%, 악화: 17.5%)에 비해 수출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감소하고,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다소 증가함
- 나머지 46.1%는 수출업황이 2009년 3/4분기와 비슷하다고 답하여, 비슷하다고 체감한 기업의 수가 전기(41.6%)에 비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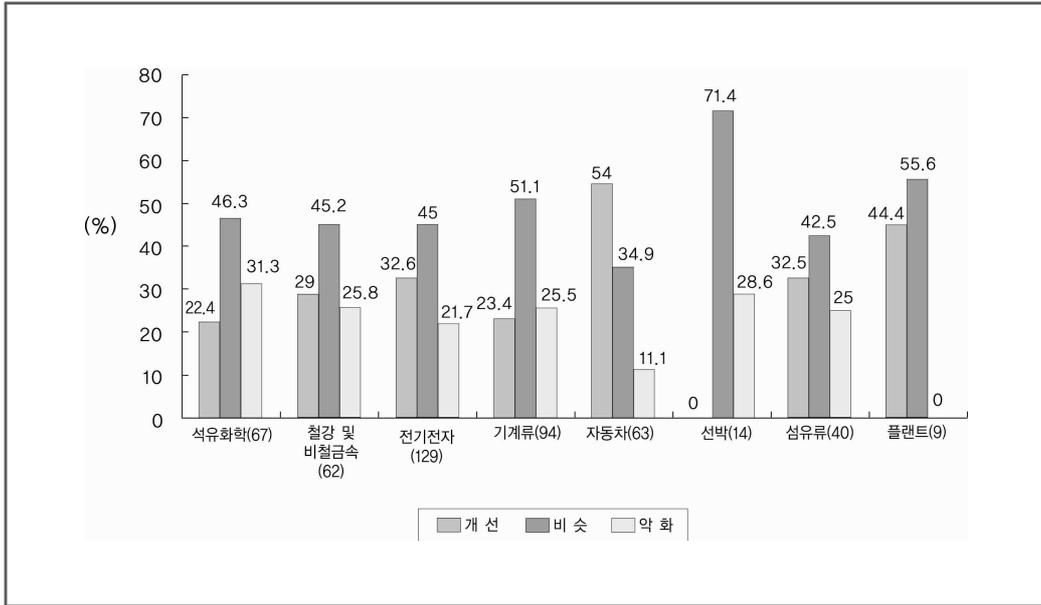
<그림 1> 수출기업의 업황개선 및 악화 분포



-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업황이 지난 분기와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가 전체 응답기업의 과반수 정도를 차지함.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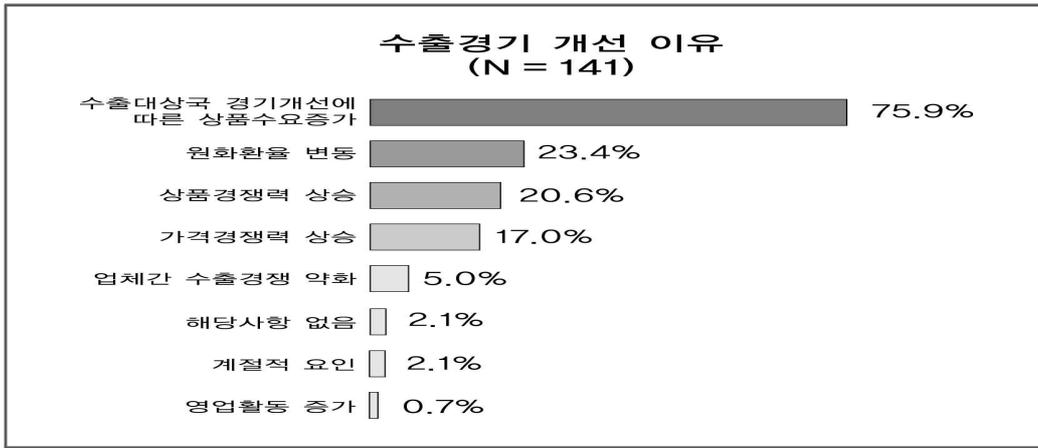
<그림 2> 산업별 수출기업의 업황개선 및 악화 분포



- 수출업황 개선 기업의 업황개선 원인으로서는 수출대상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75.9%)와 원화환율 변동(23.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복수응답)
- 자동차(82.4%)를 비롯하여 석유화학(80.0%), 철강 및 비철금속(77.8%), 기계류(77.3%), 전기전자(73.8%), 플랜트(75.0%) 등 대부분의 산업의 경우 업황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수출대상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를 답하고 있음.
- 플랜트의 경우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 이외에도 가격경쟁력 상승(50.0%)과 상품경쟁력 상승(25.0%)을 주요 개선 요인으로 꼽고 있어 다른 산업과 구별됨.



<그림 3> 2009년 4/4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주: 업황개선 기업 수 141개

<표 5>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 지역별 2009년 4/4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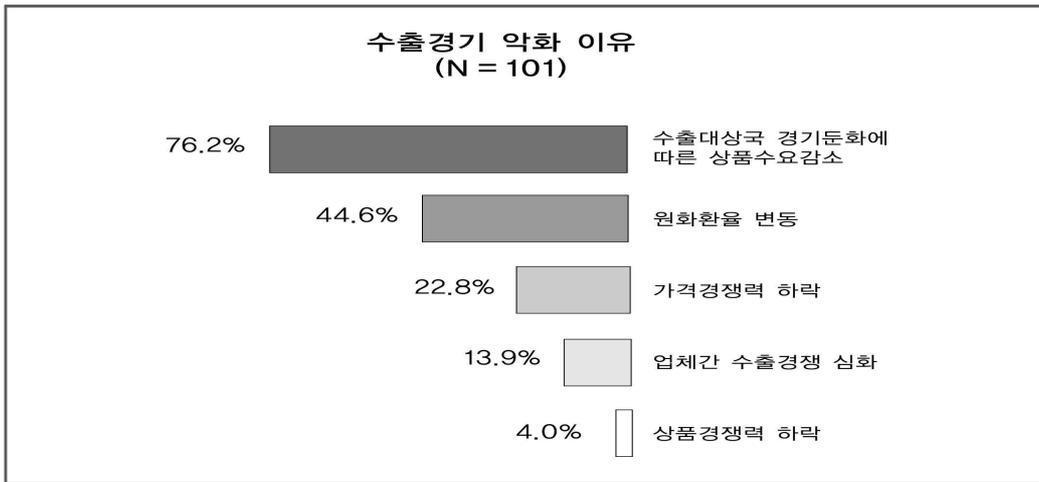
복수 응답, 단위: %

		상품 경쟁력 상승	가격 경쟁력 상승	수출 대상국 경기개선	업체간 수출 경쟁 약화	원화 환율 변동	기 타
규모별	대 기 업	13.2	21.1	89.5	0.0	28.9	0.0
	중 소 기 업	23.3	15.5	70.9	6.8	21.4	6.8
업종별	석 유 화 학	13.3	20.0	80.0	6.7	26.7	6.7
	철강 및 비철금속	11.1	33.3	77.8	5.6	22.2	5.6
	전 기 · 전 자	33.3	21.4	73.8	2.4	9.5	4.8
	기 계 류	13.6	9.1	77.3	0.0	27.3	0.0
	자동차(부품 포함)	20.6	8.8	82.4	2.9	35.3	0.0
	섬 유	15.4	0.0	53.8	15.4	30.8	23.1
	플 랜 트	25.0	50.0	75.0	0.0	0.0	0.0
지역별	미 국	17.8	6.7	80.0	6.7	24.4	4.4
	중 국	15.6	18.8	78.1	0.0	28.1	3.1
	일 본	8.3	33.3	79.2	12.5	20.8	4.2
	유 로	26.7	6.7	80.0	0.0	13.3	6.7
	동 남 아	42.9	14.3	64.3	0.0	21.4	14.2
	중 남 미	33.3	33.3	66.7	0.0	0.0	0.0



- 한편, 수출업황 악화 기업의 악화 원인으로는 수출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76.2%)와 원화환율 변동(44.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복수응답)
- 선박(100%), 기계류(87.5%), 섬유류(80.0%), 철강 및 비철금속(75.0%), 전기전자(75.0%) 등 대부분의 경우 수출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를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답하고 있어 해당 산업의 업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을 보임.
- 자동차(57.1%)를 비롯하여 철강 및 비철금속(56.3%), 기계류(54.2%), 석유화학(52.4%) 등의 산업은 수출업황이 악화된 요인으로 원화환율 변동을 꼽고 있고, 해당산업이 원화환율 변동에 민감함을 보임.

<그림 4> 2009년 4/4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주: 업황악화 기업 수 101개



<표 6>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 지역별 2009년 4/4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복수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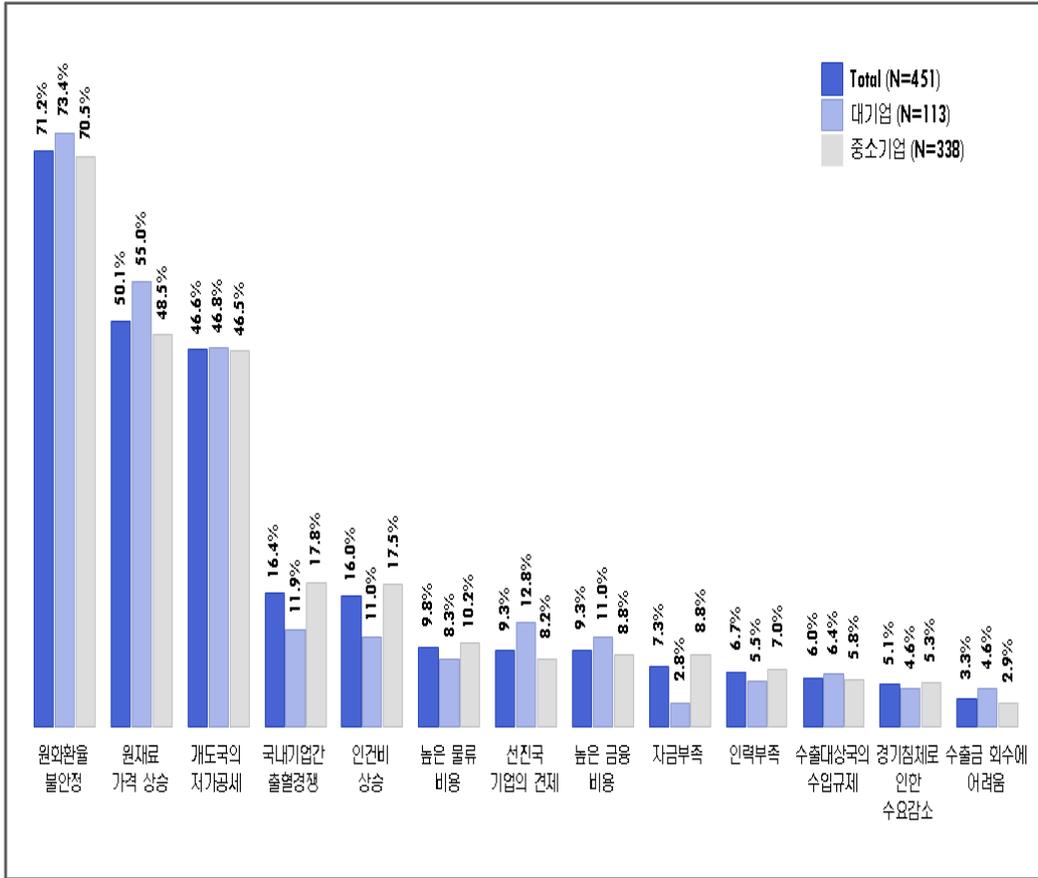
		상품 경쟁력 하락	가격 경쟁력 하락	수출 대상국 경기악화	업체간 수출 경쟁 심화	원화 환율 변동	기 타
규모별	대 기 업	0.0	17.6	82.4	5.9	41.2	0.0
	중 소 기 업	4.8	23.8	75.0	15.5	45.2	3.6
업종별	석 유 화 학	9.5	38.1	66.7	14.3	52.4	0.0
	철강 및 비철금속	6.3	25.0	75.0	6.3	56.3	6.3
	전 기 · 전 자	0.0	21.4	75.0	21.4	35.7	0.0
	기 계 류	0.0	4.2	87.5	12.5	54.2	4.2
	자동차(부품 포함)	0.0	42.9	71.4	0.0	57.1	0.0
	조 선	0.0	0.0	100.0	25.0	50.0	0.0
	섬 유	10.0	20.0	80.0	0.0	40.0	10.0
지역별	미 국	3.0	12.1	81.8	9.1	51.5	6.0
	중 국	6.7	33.3	66.7	26.7	53.3	0.0
	일 본	0.0	21.4	78.6	14.3	35.7	0.0
	유 로	7.1	42.9	78.6	14.3	35.7	0.0
	동 남 아	8.3	16.7	66.7	16.7	41.7	8.3
	중 남 미	0.0	0.0	100.0	0.0	50.0	0.0

2. 수출기업 애로사항

- 4/4분기 중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원화환율 불안정(71.2%), 원자재 가격 상승(50.1%) 및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46.6%)가 꼽히고 있음
- 원화환율 불안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은 기업의 비중은 전기(63.2%)보다 다소 증가한 반면, 원자재 가격상승(52.3%),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48.1%)를 꼽은 기업의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음.
 - 환율의 경우 원/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 모두 전기 대비 하락하여 수출기업들이 원화의 강세로 인한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5> 2009년 4/4분기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 조선, 플랜트, 철강 및 비철금속 등 대부분의 산업의 경우 위 세 가지 애로사항 외에도 국내기업 간 출혈경쟁(16.4%)과 인건비 상승(16.0%), 높은 물류비용(9.8%)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



<표 7> 2009년 4/4분기 산업별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단위: %

	석유 화학	철강 및 비철금속	전기 전자	기계류	자동차	조선	섬유류	플랜트
원화환율 불안정	74.6	79.0	72.9	69.1	61.9	64.3	75.0	66.7
원재료 가격 상승	67.2	50.0	44.2	47.9	55.6	7.1	72.5	44.4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49.3	50.0	44.2	45.7	42.9	42.9	47.5	22.2
국내기업간 출혈경쟁	13.4	21.0	14.7	19.1	11.1	28.6	12.5	22.2
인건비 상승	11.9	3.2	25.6	13.8	19.0	14.3	17.5	22.2
높은 물류비용	3.0	9.7	12.4	10.6	9.5	0.0	15.0	0.0
높은 금융비용	7.5	8.1	9.3	12.8	9.5	7.1	10.0	0.0
선진국 기업의 견제	10.4	12.9	11.6	8.5	3.2	7.1	5.0	22.2
자금부족	6.0	3.2	9.3	9.6	1.6	14.3	5.0	11.1
인력부족	1.5	0.0	6.2	6.4	7.9	14.3	5.0	44.4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	9.0	6.5	6.2	4.3	4.8	0.0	10.0	11.1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	0.0	8.1	3.1	6.4	7.9	28.6	5.0	0.0
수출금 회수에 어려움	0.0	1.6	2.3	4.3	3.2	14.3	5.0	0.0